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4:32-42

【인도자를 위한 예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각 사람에게 부탁하신 일을 잘하고 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들에게 “애야, 엄마가 지금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고 있으니, 이따가 다 되면 꺼내서 널어 줘”라고 부탁하며 외출했는데, 아들이 엄마가 부탁한 일은 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은 설거지를 해 놓았다면 어떨겠는가? 과연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충성이다. “너 뭐 하다 왔니?” 이 질문은 내 삶에 크나큰 전환점이 되었다. 주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내 걸음을 이끄셨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바짝 귀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러는 동안 내게 가장 큰 훈련은 바로 ‘순종’이었다. 어떤 순간이든 어떤 명령이든 내 결정은 순종이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이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통해 너무도 분명하게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서 와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으신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길 원하신다. “너 뭐 하다 왔니?” - 이은상, 「너 뭐 하다 왔니? 저의 대답은 순종입니다」(두란노)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본문 읽기】 마가복음 14:32-42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갯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으로 예루살렘 동쪽 성벽으로부터 1.2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갯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감람산에서 많이 나는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내는 것과 관련된 장소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습관처럼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곤 하셨는데, 이번에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비장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그곳에 오르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마치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을 다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갯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시종일관 잠만 자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비됩니다. ‘세 번’, 곧 ‘3’이라는 숫자는 유대 문화에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 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해야 할 기도를 완전하게 마치셨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완전한 기도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갯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완전한 기도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능과 의지를 끊은 순종과 승리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32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갯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갯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적으로 드리던 기도와 구별되는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기도하곤 하셨으나, 특별히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인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36절)라는 기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통과 번민의 호소에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드린 간절한 기도를 통해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깨어 있으라’(34절)는 조

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주위를 지켜보거나 심적으로 태만에 빠지지 않고 각성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는 문자적인 뜻보다는, 도적을 막기 위해 주위를 살피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지키라’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에게 탁월 시험과 핍박을 이길 능력을 간구하길 원하셨습니다.

적용과 나눔 I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34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38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의 명령문은 모두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지금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이루는 두 개의 동사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잠들었던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해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22:45). 마음으로는 깨어서 기도하길 원했지만 피곤함 등의 신체적 약함으로 방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유혹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이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말고 성령에 의지해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II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36절)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십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브’에서 유래한 아람어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아빠’로 부르셨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로 부를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갈 4:6). 예수님은 친밀한 아버지인 하나님만이 십자가의 잔을 옮기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가능하다면 작성된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 번의 동일한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라는 가르침과 맥을 같이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적용과 나눔 II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순종하기 힘들 때 기억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으로 인해 잠지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도 영적 상태가 이와 유사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영적 공격을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듯 구경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싸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3~4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싸움을 싸우도록 모집된 군사와 같고 주님은 우리의 대장 되심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대장 되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그분이 싸우시는 곳에서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참여하길 꺼리면서 그분의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17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고난 받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